

상담회기영향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 현 미 민 병 배[†]
기독교족상담소 서울인지치료상담센터

본 연구에서는 상담회기영향척도(Session Impacts Scale: SIS)를 우리 나라 말로 번안하여 우리 나라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는데, 한국어판 SIS는 본래의 SIS와 마찬가지로 크게 유의성과 방해 영향이라는 두 요인으로 분리되고, 유의성 요인은 다시 과제 영향과 관계 영향이라는 하위 요인으로 분리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 하위 요인들은 비교적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긍정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SIS의 각 하위척도들(유의성, 과제 영향, 관계 영향)은 SEQ의 순조로움, 깊이, 긍정적 정서 척도 및 단일문항 회기 유의성 평정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SIS의 방해 영향 하위척도는 이들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IS 척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담자, 내담자 변인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상담회기 영향척도, 유의성 영향, 방해영향, 과제영향, 관계영향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소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 지향적 조력과정이므로 상담 과정의 효과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상담 실제와 상담 연구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상담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담 과정에 의해 일어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상담의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Rosen & Proctor, 1981). 이제까지 상담

문현미는 기독교족상담소에, 민병배는 서울인지치료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민 병 배, (151-6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1-7 다지빌딩 4층 서울인지치료상담센터,
전화 : 02) 887-1633 E-mai : minbb@maumsarang.co.kr

의 효율성 평가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상담의 최종적인 결과(ultimate outcome)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연구한 것과 각 상담 회기의 즉시적인 효과(immediate impact)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들로 구분된다(최윤미, 1987).

상담 과정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담 과정을 어떤 단위로 구분하여 연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상담 과정은 다양한 단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데, 상담 과정 전체가 하나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상담 회기,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상담 회기는 상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간 수준의 편리한 단위이다. 상담 전체나 회기내 언어적 상호작용보다는 회기를 연구하는 것이 더 수월하며, 아울러 회기는 미시적인 단위들과 거시적인 단위들 사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Stiles, 1980). 그리고 회기 성과는 바람직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과정 목표로서, 상담 과정과 상담 성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상희, 1993).

상담 회기가 여러 회 진행된 후에 상담의 최종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매 회기의 효과가 누적될 뿐 아니라 매우 복잡한 상담과정 변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담 과정 중의 어떤 종류의 개입이나 기법, 상호작용 등이 유용한지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Stiles, 1980). 따라서 '어떤 방식의 상담 기법이나 개입이 효과적인가' 하는 점을 좀더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상담 회기의 즉시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접근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회기 영향력(session impacts)이란 회기 전반에 대한 내담자의 평가나 회기의 특별한 특징에 대한 평가, 혹은 회기 직후 내담자의 정서 상태 등을 포함하는 회기의 즉각적인 주관적 효과를 말한다

(Stiles, 1980). 즉, 회기 영향력에 대한 측정은 특정 회기에 대한 내담자의 내면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볼 때 회기 영향력은 회기내 사건과 상담처치의 장기적 누적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적인 매개 과정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려면, 회기 영향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담자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야 하는데(Stiles, Reynolds, Hardy, Rees, Barkham, & Shapiro, 1994), 회기 수준에서 내담자의 관점으로 치료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 상담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며, 비디오를 보면서 상담 회기를 회상하는 방법에 비해서도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Elliott & Wexler, 1994).

회기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Stiles(1980)의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이하 SEQ)나 Orlinsky와 Howard(1975)의 치료회기보고서(Therapy Session Report: 이하 TSR)가 있으며, 증상이나 문제의 회기간 변화를 측정하는 개인질문지(Personal Questionnaire: PQ, Phillips, 1986)도 자주 사용되어 왔다.

회기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국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도구는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Q, Stiles, 1980; Stiles & Snow, 1984)이다. SEQ는 상담 회기가 끝난 직후에 상담 회기 자체가 미친 영향, 즉 상담의 즉시적 효과로서의 지각된 상담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의미 미분법 형식의 양극형용사로 이루어진 24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기가 끝난 직후 상담시간에 대한 평가('깊이'와 '순조로움')와 더불어 상담 직후의 정서 상태('긍정적인 정서'와 '각성도')를 평가함으로써 상담 회기의 즉시적 효과를 측정한다(Stiles & Snow, 1984). 우리나라에서는 오경희(1986)에 의해서 SEQ

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이상희, 1993; 최윤미, 1987 등), 상담의 여러 변인들과 상담 효과의 상관을 검토하는 연구들(김정옥, 1990; 문현미, 1989; 문형춘, 1993; 유성경, 1988; 이동귀, 1993; 최윤미, 1987 등)에서 활용되어왔다.

SEQ는 회기에 의한 즉시적 성과로서 내담자나 상담자의 전반적인 정서적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SEQ가 개발된 이후에, 상담의 즉시적 성과와 관련하여 내담자가 상담 회기 후에 어떠한 유익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Elliott, 1985; Elliott, Barker, Caskey, 1982; Elliott, James, Reimschuessel, Cislo, & Sake, 1985; Fuller & Hill, 1985; Gershefskit, Arnkoff, Glass, & Elkin, 1996; Martin & Nadler, 1986;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Wilcox-Matthew, Otten, & Minor, 1997). 이러한 연구 흐름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상담의 즉시적 성과로서 내담자가 상담 회기 중에 경험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한 도구가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회기 영향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상담회기영향척도(Session Impacts Scale: 이하 SIS)(Elliott, 1985; Elliott & Wexler, 1994)이다.

본 연구는 상담회기영향척도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우리나라 말로 번안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SIS의 요인구조 및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고, 기존에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상담회기평가도구인 SEQ와의 상관을 검토하고, SIS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SIS의 개발과정 및 특징

SIS는 Elliott와 동료들(Elliott, 1985; Elliott, James,

Reimschuessel, Cislo, & Sack, 1985)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내담자들로부터 치료 중에 경험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얻은 후,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내용 분석과 군집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군집 분석 연구에서 치료적 영향력은 크게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유익성 영향(helpful impacts)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 영향(hindering impacts)이었다. 또한 유익성 영향은 다시 2개의 하위 군집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과제 영향(task impacts)으로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서 진전(예: 자기 자신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음)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관계 영향(relationship impacts)으로서 내담자가 상담자와 대인관계 상에서 어떤 형태의 긍정적인 만남(예: 상담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상담자와 더 가까워졌다고 느낌)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방해 영향에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경험들(예: 이해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든지, 치료의 진전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느낌)이 포함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Elliott와 Wexler (1994)는 회기 수준에서 치료적 영향력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16문항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SIS의 16개 문항들은 그 회기 중에서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각각의 특별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였는지를 질문한다. 간략한 양극 형용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SEQ의 문항들에 비하여 SIS의 각 문항들은 회기의 특별한 영향을 기술하는 문구나 짤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좀더 세분화된 일련의 회기영향들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Stiles et al., 1994).

SIS는 회기에 대한 내담자의 전반적인 정서 반응보다는 특정한 경험내용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SEQ와 다르다. 아울러 SIS의 문항들은 회기 경험에 대한 내담자의 기술로부터 직접적으로 추출되었다는 점과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Orlinsky와 Howard(1975)의 심리치료회기보고서(TSR)와 차이가 난다(Elliott & Wexler, 1994).

SIS의 16문항들(부록 참조)을 살펴보면, 이 도구가 회기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세분화된 차원들을 포함하는 측정도구임을 알 수 있다. 회기영향은 전반적인 단일 차원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며, 이론적 입장이나 치료 단계, 참여자의 성격, 다루어지는 대화의 주제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차원의 회기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회기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 따라서 회기 영향들을 측정한다면, 변화 과정의 특수한 내면적 측면을 다차원적으로 수량화함으로써 심리치료의 복잡한 효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 개관 및 연구 목적

Elliott와 Wexler(1994)는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SIS를 개발하면서, 이 도구의 다양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과정-체험적 단기 치료에 참여한 48명의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SIS의 평정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먼저 SIS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Elliott(1985)가 군집 분석을 통하여 제안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즉 회기 영향은 크게 유익성 영향과 방해 영향의 두 요인으로 나뉘어지며, 유익성 요인은 다시 과제 영향과 관계 영향이라는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지는 위계적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11번의 '원치 않는 생각' 문항은 방해 영향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

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SIS는 유익성(1-10번), 과제 영향(1-5번), 관계 영향(6-10번), 방해 영향(12-16번)의 4 가지 하위척도로 채점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SIS의 4 가지 하위척도들은 적절한 범위의 내적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SIS와 유사한 차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SEQ의 하위척도들(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SIS의 유익성 척도는 SEQ의 깊이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 정서 척도와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SIS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SIS의 각 하위척도들은 SEQ의 상담 후 각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SIS의 변별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Stiles 등(1994)의 연구에서는, SIS가 더 기술적이고 세분화된 회기 영향을 재는 도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과제 영향 요인을 다시 이해영향과 문제해결 영향 요인으로 나누어서 SIS의 하위척도를 5개(유익성, 이해, 문제해결, 관계 영향, 방해 영향)로 확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SIS의 이해, 문제해결, 관계 영향 등의 긍정적 영향은 내담자가 평가한 SEQ의 깊이 척도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순조로움 척도와는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적 정서 척도와는 다양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IS의 방해 영향 척도는 SEQ의 하위척도들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SIS의 이해, 문제해결, 관계 영향 척도는 상담 회기 전반에 대한 두 가지 단일 평정치들('좋다-나쁘다', '유익하다-방해가 되다')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Reynolds, Stiles, Barkham, Shapiro, Hardy 및 Rees (1993)는 서로 다른 치료 접근들 및 치료 단계들 간에 SIS의 하위척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SIS의 구성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즉, SIS의 이해, 문제해결, 관계 영향 척도점수들은 서로간에 상관이 높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입장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서 각 하위척도 점수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인지행동치료와 대인-역동 치료를 받는 각각의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회기에 대하여 SIS를 평정한 결과,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대인-역동 치료에 참여한 내담자들에 비해 문제해결 영향 척도에서 더 높은 평정을 보인 반면, 이해 영향(통찰과 자각) 척도와 관계 영향 척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8회기 동안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16회기 상담이 진행된 내담자들에 비하여 이해 영향 척도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문제해결 영향이나 관계 영향 척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장재홍(1999)이 그의 연구에서 상담회기영향척도(SI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SIS 원 척도의 여러 개의 진술들 중에서 대표적인 진술만을 뽑아 간략한 문항으로 축소, 수정한 것이다. SIS는 상담회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회기로 인해 내담자가 경험한 영향의 지각 내용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한 도구이므로, 복합적인 진술로 인하여 측정 시간이 길어지고 단순성이 상실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 문항을 충실하게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 도구가 본래 개발된 목적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 선행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를 위해서도 간편형 SIS 보다는 본래의 SIS를 번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S의 국내 활용을 위하여 이를 우리나라 말로 번안하고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저자들이 제안한 SIS의 요인 구조가 한국어판 SIS를 통한 우리나라 실제 상담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SIS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검토하고, 상담회기의 즉시적 영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Q)의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 각성 차원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SIS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변인, 내담자의 성별, 연령 등의 변인, 그리고 상담의 회기 수 등과 같은 변인들이 SIS 평정 변량의 어느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즉 상담의 다양한 변인들이 SIS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SIS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개발된 한국어판 SIS는, 상담 회기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부족한 국내 상담 연구 상황이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총 17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10명은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4명은 사설유료상담기관에서, 3명은 비영리상담기관에서 현재 개인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이었고, 남자 상담자는 3명, 여자 상담자는 14명이었다. 상담자의 나이는 27세에서 44세까지였으며, 상담 경력은 1년에서 13년으로서 전문가가 9명, 비전문가가 8명이었고, 교육경력은 박사 4명, 박사과정 6명, 석사 7명이었다.

모두 67명의 내담자가 총 179회기의 상담에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남자는 27명, 여자는 40명이었고, 연령은 13세에서 58세에 분포하였다. 상담회기는 1회부터 41회까지 진행된 회기가 포함되었다.

한 상담자에 최소한 두 명 이상의 내담자가 포함되었고, 한 내담자는 최소 2회 이상의 회기에

참여하였다. 내담자들은 상담 직후에 곧바로 연구 질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첫 연구 회기 직후에는 SIS, SEQ 및 회기의 전반적 유익성에 대한 단일 평정문항을 작성하였고, 두 번째 연구 회기부터는 SIS만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67명의 내담자로부터 179개의 SIS 자료와 67개의 SEQ 자료 및 유익성 단일 평정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친 내담자들은 각 회기 직후에 연구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질문지는 봉합 테이프가 부착된 봉투에 넣어서 봉합한 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자와 상담관계에 대한 의식이 자료 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도 구

상담회기영향척도(Session Impacts Scale: SIS) : 한 회기의 치료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Elliott와 Wexler(1994)가 제작한 16문항의 척도 각 문항들은 상담회기의 다양한 영향을 기술하는 짝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어느 정도 그렇다, 4=상당히 그렇다, 5=매우 많이 그렇다)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담자들은 상담 회기 직후에 '어느 것이 상담 중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장 잘 기술하는 지'에 기초하여 각 문항을 평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lliott와 Wexler(1994)가 제작한 상담회기영향척도를 연구자들이 먼저 번안한 후에 영문학과 교수 1인, 박사학위 소지 임상심리전문가 1인, 미국에서 석사를 마친 상담경력 5년의 상담자 1인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번안문을 확정하였다.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 : Stiles(1980; Stiles & Snow, 1984)가 개발한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희(1993)가 SEQ form 4(Stiles, 1989)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양극형용

사 형식의 7점 척도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척도로서, 상담시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상담 직후의 정서 상태에 대한 측정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번 상담시간은 _____"으로 된 전반부의 12문항이 상담회기에 대한 평가이고, "상담이 끝난 바로 지금 나는 (마음이) _____"로 된 후반부의 12문항이 상담회기 직후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회기에 대한 평가는 '깊이'와 '순조로움'이라는 두 하위 차원으로 나뉘며, 상담 직후의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라는 두 하위 차원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SEQ를 채점할 때 이상희(1993)의 요인분석 결과를 따라서 하위척도를 채점하였다.

상담회기의 전반적 유익성에 대한 단일 평정 문항 : SEQ의 상담회기평가 차원 문항에 상담회기 전반에 대한 유익성 문항을 추가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즉 "이번 상담 시간은 도움이 되었다 - 방해가 되었다"의 문항을 SEQ에 덧붙여 평가하게 함으로써 상담회기가 전반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방해가 되었는지를 단일 문항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 과

SIS의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SIS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179개의 SIS 자료에 대해 Elliott와 Wexler(1994)의 방식을 따라서 주축요인방식(principal-axis factoring)에 의해서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방식에 의해서 요인을 회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Elliott와 Wexler(1994)는 그들의 요인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3요인 구조(과제 영향 요인, 관계 영향 요인, 방해 영향 요인)와 2요인 구조(유익성

요인, 방해 영향 요인)를 모두 받아들여 SIS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즉, 2요인 구조에서의 유익성 요인(1-10번 문항)이 3요인 구조에서의 과제 영향 요인(1-5번 문항)과 관계 영향 요인(6-10번 문항)을 완벽하게 포괄하여 유익성 요인이 두 요인의 고차적 요인일 가능성이 시사됨으로써, SIS를 채점할 때 과제 영향, 관계 영향, 유익성(과제 영향과 관계 영향을 포괄하는 고차적 척도), 방해 영향(12-16번 문항)의 4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원저자들의 결과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였다. 주축요인방식에 의한 요인 추출 결과, 고유치 1.00 이상의 요인은 3개였으며

(각각 6.72, 2.30, 1.02), 3개의 요인은 각각 총변량의 42.0%, 14.4%, 6.4%를 설명하여 총 62.8%를 설명하였다. Scree 검사에서는 2요인 해법 혹은 3요인 해법 둘 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3요인을 지정하고 varimax 방식에 의해 요인을 회전하여 0.40이상의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을 선정하였을 때, 선행 연구들과 거의 일치되게 과제 영향(Task Impacts) 요인(1-5번), 관계 영향(Relationship Impacts) 요인(6-10번), 방해 영향(Hindering Impacts) 요인(11-16번)의 3요인이 나타났다. 회전된 요인 행렬과 communality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과제 영향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관계 영향 요인에도 이차적으로

표 1.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3요인 구조의 요인 분석 결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과제영향	관계영향	방해영향	communality
1. 자기에 대한 통찰	3.19	1.00	.66	.24		.50
2. 타인에 대한 통찰	2.77	1.02	.61	.29		.45
3. 자각	3.37	0.92	.80			.65
4. 문제의 명료화	3.39	1.01	.67	.39		.61
5. 문제의 진전	3.19	1.11	.62	.40		.58
6. 이해받음	3.65	0.85	.49	.64		.66
7. 지지받음	3.40	1.05	.48	.70		.76
8. 고통의 경감	3.31	1.01	.51	.56	-.23	.67
9. 상담에 더 몰입함	3.53	1.06	.48	.60		.60
10. 상담자와 더 가까워짐	3.37	0.95	.45	.72		.73
11. 원치 않는 생각	2.01	1.03			.41	.18
12. 상담자의 압력	1.23	0.54		-.24	.60	.46
13. 오해받음	1.28	0.60		-.49	.47	.46
14. 공격당하거나 거부당함	1.08	0.33			.61	.38
15. 혼란스럽거나 산만해짐	1.30	0.62			.62	.41
16. 짜증나거나 회의가 듦	1.22	0.51	-.24		.72	.57

주 0.20이하의 요인부하량은 생략함

표 2. 2요인 구조의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유익성	방해영향	communality
1. 자기에 대한 통찰	.67		.44
2. 타인에 대한 통찰	.66		.44
3. 자각	.67		.45
4. 문제의 명료화	.76		.60
5. 문제의 진전	.73		.57
6. 이해받음	.77		.62
7. 지지받음	.80	-.28	.71
8. 고통의 경감	.77	-.28	.67
9. 상담에 더 몰입함	.74		.58
10. 상담자와 더 가까워짐	.78		.65
11. 원치 않는 생각들		.41	.19
12. 상담자의 압력	-.27	.63	.47
13. 오해받음	-.27	.52	.35
14. 공격당하거나 거부당함		.62	.39
15. 혼란스럽거나 산만해짐		.60	.38
16. 짜증나거나 회의가 듬	-.21	.68	.50

주. 0.20이하의 요인부하량은 생략함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어, 두 요인이 경험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1번 문항은 방해 영향 요인에 절단점에 가까운 요인부하량(0.41)을 보였고 communality도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서,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게 방해 영향 요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2요인을 지정하였을 때, 3요인 구조에서의 과제 영향 요인과 관계 영향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합쳐져서 유익성(Helpful Impacts) 요인을 구성하고(1-10번), 방해 영향 요인(11-16번)이 다른 한 요인을 구성하였다. 11번 문항은 여전히 방해 영향 요인에 절단점에 가까운 요인부하량(0.41)

을 보였고 communality도 매우 낮아서, 앞과 같은 이유에서 방해 영향 요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회전된 요인 행렬과 communality는 표 2에 제시하였다.

SIS의 확장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2요인 구조와 3요인 구조를 모두 지지하고, 2요인 구조에서의 유익성 요인이 3요인 구조의 과제 영향 요인과 관계 영향 요인을 포괄하는 고차적 요인일 가능성도 시사되었기 때문에, 확장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3가지 요인 모델(2요인 모델, 3요인 모델, 위계적 요인 모델)을 평가하고 3 모델간의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하였다. 새로운 표본에 대하여 교차표본 타당화를 실시하지는 못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한 표본에 대하여 LISREL을 이용한 확장적 요인분석 방식을 적용하였다. 세 가지 모델에 대한 X^2 검증치와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것이 표 3에 제시되었다.

3가지 모델 모두에서 각 요인과 해당 문항들간의 회귀계수가 11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0.55 이상이었고, 적합도 지수들의 범위도 적절하여 세 모델 모두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이 3 모델들은 서로 등지 틀지 않은 모델들(unnested models)

표 3. 세 가지 요인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

지수	2요인 모델	3요인 모델	위계적 모델
X^2	df=103, 254.4	df=101, 205.0	df=102, 213.6
NFI	0.968	0.974	0.973
NNFI	0.975	0.982	0.981
CFI	0.981	0.987	0.986
RMSEA	0.091	0.076	0.078
AIC	352.4	307.0	313.6

이므로 모델간 비교를 위한 통계적 검증을 할 수는 없었으나, 3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해 볼 때 3요인 모델과 위계적 요인 모델이 2요인 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가지 모델 모두에서 11번 문항은 방해 영향 요인과의 회귀계수가 0.3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서, 방해 영향 요인에서 11번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어판 SIS를 채점할 때에도 선행 연구들에서의 채점 방식과 마찬가지로 과제 영향 척도(1-5번), 관계 영향 척도(6-10번), 유익성 척도(11-10번), 방해 영향 척도(12-16번)의 4척도를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신뢰도 : 내적 일치도(알파계수)

SIS는 척도의 속성상, 시간적 안정성과 관련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SIS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알파계수 만을 산출하였다. 과제 영향 척도, 관계 영향 척도, 유익성 척도, 방해 영향 척도의 알파계수는 각각 .85, .91, .93, .76으로서 문항 수에 비해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방해 영향 척도에 11번 문항을 추가할 경우, 알파계수는 .76에서 .67로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해 영향 척도에서 11번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lliott와 Wexler(1994)의 자료에서는 알파계수가 각각 .84, .91, .92, .67이었다.

기술 통계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각 척도

표 4.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평균	표준편차
과제 영향	15.9	4.0
관계 영향	17.3	4.2
유익성	33.2	7.7
방해 영향	6.1	1.9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관계 영향 척도가 가장 높은 평정을 보인 반면, 방해 영향 척도가 가장 낮은 평정을 보였다. 방해 영향 척도의 경우, 12번 문항에서 16번 문항에 대해 각각 82%, 78%, 93%, 78%, 82%의 내담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IS를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때, 방해 영향 척도의 문항들 중에서 2점('약간 그렇다') 이상에 평정한 문항(들)이 나타날 경우 내담자가 그 상담 회기에서 부정적 영향을 지각하였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된다.

다른 측정치들과의 수렴/변별 타당도

SIS와 SEQ를 비교하면서, SIS의 각 하위척도들은 SIS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측정하는 SEQ의 하위척도들(순조로움, 깊이, 긍정 정서)과 강한 관련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며, SEQ에서 이 세 하위척도와는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각성도 하위척도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반대의 관련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에서 보면, SIS의 과제 영향, 관계 영향, 유익성 척도는 SEQ의 순조로움, 깊이, 긍정 정서 하위척도 및 전반적 유익성 평정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SIS의 방해 영향 척도는 SEQ의 순조로움, 깊이, 긍정 정서 하위척도 및 전반적 유익성 평정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IS의 하

표 5. SIS와 SEQ의 하위척도 및 전반적 유익성 평정치와의 상관(N = 67)

	순조로움	깊이	긍정정서	각성도	유익성 평정치
과제 영향	.34**	.45***	.55***	-.11	.47***
관계 영향	.42**	.40**	.55***	-.28*	.49***
유익성	.42**	.46***	.60***	-.22	.53***
방해 영향	-.53***	-.27*	-.43***	.34**	-.50***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6. 내담자의 성별에 따른 회기 영향의 차이에 대한 t 검증

척도	남자 (N = 71)	여자 (N = 108)	t값
과제 영향	15.6(4.3)	16.1(3.8)	-.87
관계 영향	17.1(4.6)	17.4(4.0)	-.48
유익성	32.7(8.3)	33.5(7.4)	-.71
방해 영향	6.5(2.2)	5.9(1.6)	2.20*

주. * p < .05

표 7. 상담자의 성별에 따른 회기 영향의 차이에 대한 t 검증

척도	남자 (N = 25)	여자 (N = 154)	t값
과제 영향	16.1(4.7)	15.9(3.9)	0.24
관계 영향	17.3(4.7)	17.3(4.2)	0.03
유익성	33.4(9.1)	33.1(7.5)	0.14
방해 영향	6.3(2.7)	6.1(1.7)	0.55

위척도들은 SEQ의 각성도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 관계 패턴은 SIS의 수렴/변별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기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SIS에 대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담자 및 내담자 변인이 SIS 척도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내담자의 성별 차이는 방해 영향 척도 점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 내담자들은 남자에 비해 방해 영향 척도에서 더 낮은 평정을 하였다(표 6). 상담자의 성별 차이는 SIS의 어떤 하위척도 점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7). 전문가를 취득한 상담자들은 비전문가에 비해 관계 영향과 유익성 척도에서 더 높은 회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상담자의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과제 영향, 관계 영향, 유익성 등 긍정적 회기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반면, 방해 영

표 8. 전문가 여부에 따른 회기 영향의 차이에 대한 t 검증

척도	전문가 (N = 96)	비전문가 (N = 83)	t값
과제 영향	16.3(3.9)	15.5(4.1)	1.30
관계 영향	18.0(4.0)	16.4(4.3)	2.42*
유익성	34.3(7.5)	31.9(7.9)	1.99*
방해 영향	6.0(1.7)	6.3(2.1)	-1.30

주. * p < .05

표 9. 상담자 연령, 경력, 내담자 연령 및 회기 수와 회기 영향의 상관

	상담자연령	상담자경력	내담자연령	회기수
과제 영향	.19**	.16*	.19**	.31**
관계 영향	.16*	.16*	.24**	.21**
유익성	.19**	.17*	.23**	.28**
방해 영향	-.20**	-.16*	-.28**	-.18*

주. ** p < .01, * p < .05

향의 부정적 회기 영향력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표 9). 또한 내담자들의 경우에도 연령과 과제 영향, 관계 영향 및 유익성 척도점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연령과 방해 영향 척도점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회기 수와 SIS의 하위척도 점수들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회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과제 영향, 관계 영향, 유익성 등 긍정적 회기 영향력 또한 증가하는 데 비해, 방해 영향의 부정적 회기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회기영향척도(SIS)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고 우리나라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한 SIS의 심리측정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해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익성, 과제 영향, 관계 영향, 방해 영향 등의 네 가지 하위 요인을 얻음으로써 한국판 SIS의 위계적 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하위 요인들은 Elliott와 Wexler(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

였다. 셋째, SIS의 긍정적 요인들(유익성, 과제 영향, 관계 영향)은 SIS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측정하는 SEQ의 순조로움, 깊이, 긍정적 정서 요인 및 단일문항 회기 유익성 평정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SEQ의 각성도 요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SIS의 수렴/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SIS의 방해 영향 요인은 SEQ의 순조로움, 깊이, 긍정적 정서 요인 및 단일문항 회기 유익성 평정치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각성도 요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IS 하위척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및 내담자 변인을 검토하였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상담자가 경력이 많고 전문가일수록, 내담자가 과제 영향, 관계 영향, 유익성 영향을 많이 받으며 방해 영향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기 수가 증가할수록 과제 영향, 관계 영향, 유익성 등 긍정적 회기 영향력이 증가하고 방해 영향인 부정적 회기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번안한 한국판 상담회기영향척도(SIS)가 상담회기 중에 내담자가 지각한 영향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는 상담의 즉시적 성과인 회기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변안하여 우리나라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상담 회기의 즉시적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 지난 10여년간 SEQ만을 유일하게 사용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본 연구에서 변안하고 타당화한 SIS는 상담의 즉시적 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담의 즉시적 성과인 상담회기 영향은 상담 연구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SIS는 상담 연구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이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담자 변인이나 내담자 변인, 또는 상담 회기 내 상호작용 변인 및 상담자의 반응양식이나 상담 기법 등에 따른 회기영향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회기영향과 상담 성과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Hill, Helms, Tichenor, Spiegel, O'Grady, & Elgin, 1988; Kivlighan & Angelone, 1991; Mallinckrodt, 1993; Nocita & Stiles, 1986 등)

보다 정교화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가 지니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회기영향척도가 상담의 성과를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언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회기영향에 따른 상담성과의 변화를 예언하는 작업은 복잡한 절차와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 상담 회기의 영향이 상담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담의 성과관 일정 기간 상담을 받은 이후의 증상의 변화나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담 성과와 상담의 최종적 성과와의 관련성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문제 유형을 지닌 내담자 집단에 따라 회기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는 상담자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서 상담 회기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SIS의 구성타당도를 보다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상담의 이론적 접근이나 내담자 변인에 따른 회기 영향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특별히 높거나 낮은 회기영향 점수를 보이는 회기에 대하여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lliott, 1989).

SIS의 방해 영향 요인의 활용에 대하여 부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면, SIS의 방해영향 요인은 그 점수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다.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부정적 지표를 나타내는 척도들은 낮은 평정치를 얻게 되는 특징이 있다. 방해영향 척도는 연속적인 척도로 이해하기보다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회기나 상담 관계의 문제가 드러난 회기를 나타내주는 표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척도에 대해서 모수 통계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척도에서 높은 평가치를 얻은 상담 시간에 대하여 문제성 있는 회기를 나타내 주는 표시로 보고, 가령 심도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한 회기나 상담 훈련을 위하여 피이드백이 필요한 문제성 회기를 찾아내는 데 이 지표를 활용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Stiles 등, 1994).

SIS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실제 장면에서도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기영향에 대한 평가는 상담 성과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회기 중에 내담자가 경험한 의미있는 사건들을 파악함으로써 상담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Frontman & Kunkel, 1994). 즉, SIS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 회기의 영향을 확인한다면, 상담자가 다음 회기를 준비하거나 상담의 전체적인 회기의 진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이번 상담회기를 통하여 상담 과제나 관계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이번 상담 회기에서 상담적 조력에 방해가 되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SIS는 상담 회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기술적 정보들을 얻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유의성이나 방해 영향과 같은 단일 지표만을 활용함으로써 SIS가 가지는 보다 세분화된 기술적 정보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Stiles 등, 1994). 예컨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회기에서는 과제 영향, 관계 영향, 유의성 등의 세 요인값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요인만을 확인하고 보다 세분화된 영향들에 대한 기술들을 놓친다면, SIS가 지니는 장점을 얻지 못하고 SEQ와 같이 상담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정서만을 측정하는 데 머무를 수 있다. 그러므로 SIS의 하위 요인뿐 아니라 각각의 문항들이 주는 정보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SIS 문항들을 보다 세분화된 기술적 용어들로 정교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희경 (2000). 내담자 저항과 저항에 대한 상담자 개입이 상담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33-53.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 김정옥 (1990). 초기상담에서 화제 결정과 상담 효율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미 (1989). *공감적 이해와 상담효율성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형춘 (1993). 초기상담에서 내담자-상담자 반응 연계유형에 따른 즉시적 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희 (1986).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 지각 및 상담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1988).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상담의 효율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귀 (1993). 초기 상담 면접에서 상담자 반응의도/내담자 주관적 반응간의 연계 단위와 상담회기 효율성 지각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1993). *상담회기평가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 (1999). 계획 조화성이 심리치료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미 (1987).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Elliott, R. (1985). Helpful and nonhelpful events in brief counseling interview: An empirical taxonom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7-55.
- Elliott, R. (1989). *The simplified personal questionnair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Toronto, Canada.
- Elliott, R., & Wexler, M. M. (1994). Measuring the impact of session in process- experiential therapy

- of depression: The Session Impac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66-174.
- Elliott, R., Barker, C. B., Caskey, N., & Pistrang, N. (1982). Differential helpfulness of counselor verbal response mo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354-361.
- Elliott, R., James, E., Reimschuessel, C., Cislo, D., & Sack, N. (1985). Significant events and the analysis of immediate therapeutic impacts. *Psychotherapy*, 22, 620-630.
- Firth-Cozens, J. A., Stiles, W. B., & Shapiro, D. A. (1988). Do sessions of different treatments have different impa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91-396.
- Frontman, K. C., & Kunkel, M. A. (1994). A grounded theory of counselors' construal of success in the initial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492-499.
- Fuller, F., & Hill, C. E. (1985). Counselor and helpee perceptions of counselor intentions in relation to outcome in a single counseling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9-338.
- Gershetski, J. J., Arnkoff, D. B., Glass, C. R., & Elkin, I. (1996). Clients' perceptions of treatment for depression: 1. Helpful aspects. *Psychotherapy Research*, 6, 233-247.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9). Emotion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 19-29.
- Hill, C. E., Helms, J. E., Spiegel, S. B., & Tichenor, V. (1988).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ategorizing client reactions to therapist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7-36.
- Hill, C. E., Helms, J. E., Tichenor V., Spiegel, S. B., O'Grady, K., & Elgin, S. P. (1988). Effects of therapist response modes in brie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 222-233.
- Kivlighan, D. M., & Angelone, E. O. (1991). Helpee introversion, novice counselor intention use, and helpee-rated session impa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25-29.
- Mahrer, A. R., & Nadler, W. P. (1986). Good moments in psychotherapy: A preliminary review, a list, and some promising research aven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10-15.
- Mallinckrodt, B. (1993). Session impact, working alliance, and treatment outcome in brie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25-32.
- Nocita, A., & Stiles, W. B. (1986). Client introversion and counseling session impa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35-241.
- Orlinsky, D. E., & Howard, K. I. (1975). *Varieties of psychotherapeutic experien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 Reynolds, S., Stiles, W. B., Barkham, M., Shapiro, D. A., Hardy, G. E., & Rees, A. (1993). *Acceleration of affective change in contrasting time-limited psychotherapies*. Unpublished manuscript.
- Rosen, A., & Proctor, E. K. (1981). Distinctions between treatment outcome and their implications for treatment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418-425.
- Rosenberg, S., & Kim, M. P. (1975). The method of sorting as a data-gathering procedure in multivariate resear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 1-16.

- Sexton, H. (1993). Exploring a psychotherapeutic change sequence: Relating process to Inter-session posttreatment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28-136.
- Stiles, W. B. (1980). Measurement of the impact of psychotherapy ses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176-185.
- Stiles, W. B., & Snow, J. S. (1984).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viewed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12.
- Stiles, W. B., Reynold, S., Hardy, G. E., Rees, A., Barkham, M., & Shapiro, D. A. (1994). Evaluation and description of psychotherapy sessions by clients using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and the Session Impac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75-185.
- Tinsley, H. E. A., & Tinsley, D. J. (1987). Use of facto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14-424.
- Wilcox-Matthew, L., Otten, A., & Minor, C. W. (1997). An analysis of significant even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282-291.
- 원고접수일: 2001. 9. 28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23
게재결정일: 2001. 12. 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ssion Impacts Scale

Hyunmee Moon

Byungbae Min

Christian Family Counseling Center Seoul Institute for Cognitive Therapy

This study was attempted to translate the Session Impacts Scale into Korean, an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confirmed the expected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measure and identified four subscales- Helpful Impacts and Hindering Impacts, with Helpful Impacts divided into Task Impacts and Relationship Impacts subscales. Internal reliabilities of 4 subscales were satisfactory. 3 SIS subscales measuring the positive impacts(helpful, task, relationship)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clients' SEQ Smoothness, Depth, and Positivity scales, and clients' global helpfulness ratings. And hindering impacts subsca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m.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on the client's experienced session impacts.

Key Words : Session Impacts Scale. helpful impacts, hindering impacts, task impacts, relationship impacts.